



가계동향조사



보도자료

배포 시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21. 12. 3.(금) 10:00

담당부서 동남지방통계청 김해사무소



통계청
김해사무소

담당자

소장: 이명철(055-344-2504)

팀장: 이미경(055-344-2502)

담당자: 정진화(055-344-2505)

코로나19를 전후한 가계소비지출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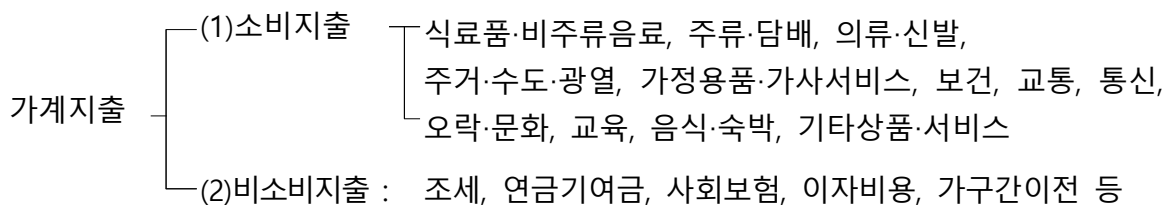


본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 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 러 두 기

- ☐ 가계동향조사는 시의성 있는 가계경제 진단 등을 위해 매월 전국 약 7,20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소득과 지출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구의 개념은 다음과 같으며, 별도 표시가 없는 통계 자료는 전국 1인이상 일반가구 기준 결과임
 - 전국가구: 도시 또는 비도시지역 가구원 1인이상 일반가구(농림어가 포함)
- ☐ 통계표에 수록되는 수치는 소득 또는 지출이 없는 가구까지 포함하여 계산한 전체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금액을 의미함
 - 금액자료는 명목금액 기준으로 작성함
- ☐ 유의사항
 - 동 조사는 표본조사로 표본오차와 비표본오차가 존재하며, 95% 신뢰수준에서 상대표준오차를 고려한 해석이 필요
 - 가구 대상 미시통계는 거시통계와 포괄범위 및 정의가 다르므로 비교 시 유의 필요
 - 수록된 자료는 반올림에 의해 전체와 하위 구성항목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 가계동향조사 결과는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와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로 제공
- ☐ 본 기획보도는 가구의 지출 중 소비지출에 한정하여 코로나19 발생 전후를 비교·분석한 결과임

<참고> 가계지출의 구성



코로나19를 전후한 가계소비지출의 변화

통계청 사회조사와 가계동향조사로 나타난
코로나19 전후 소비지출의 변화

2021 사회조사 결과

코로나19 전후 크게 늘어난 소비



1위 집밥



2위 안전·위생

집에서 먹을 음식
구매를 위한 소비

(단위: %)

57.9

안전, 위생을
지키기 위한 소비

25.9

집에서 여가활동을
즐기기 위한 소비

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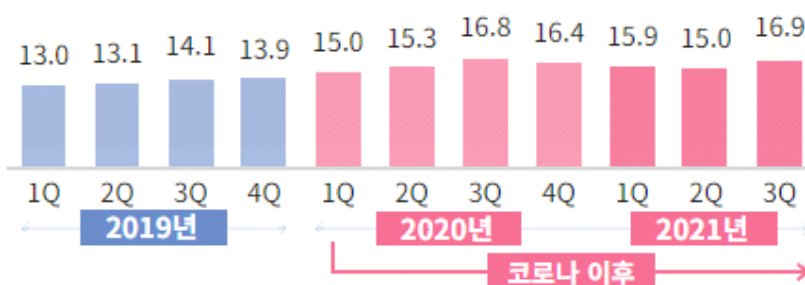
정서 만족을
위한 소비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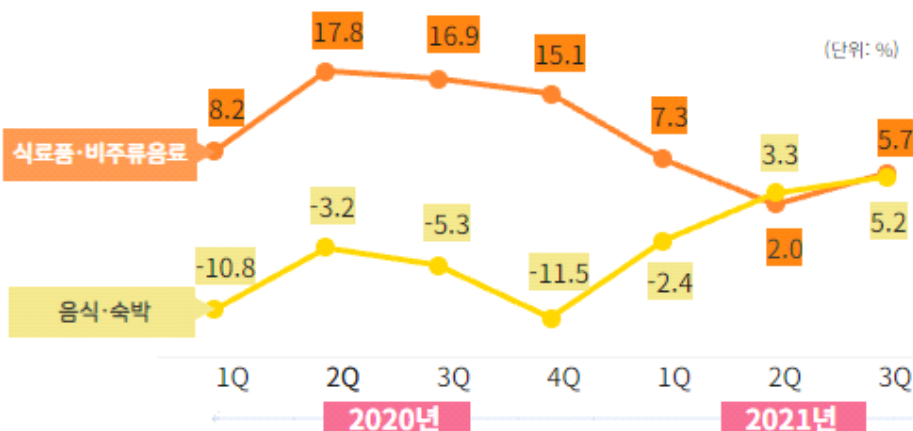
가계동향조사

(단위: %)

'식료품·비주류음료' 부문의
소비지출액 중 구성비



소비지출액 증감률
(전년동분기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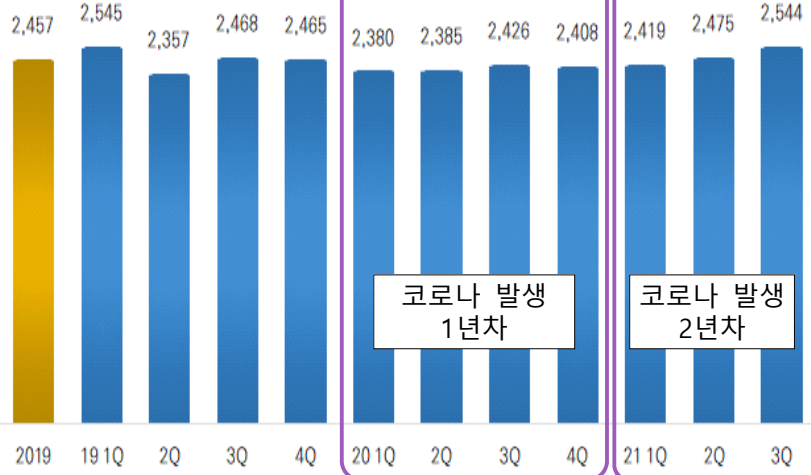
코로나19를 전후한 가계소비지출의 변화

2021년 3분기 가계소비지출액은 전년동분기대비 4.9% 증가

- 코로나19 발생 2년차인 2021년 분기별 가계의 소비지출액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1.6%, 3.8%, 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19 발생 해인 2020년 1분기~4분기 가계의 소비지출액은 2019년 평균(2,457천원)에 못 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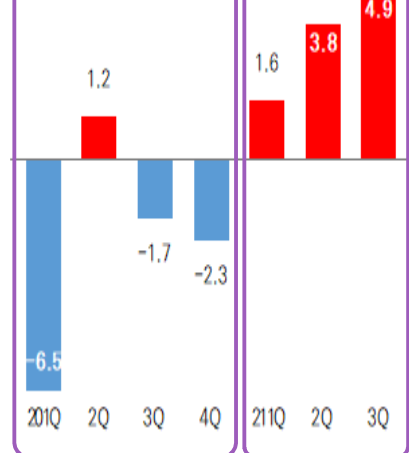
<소비지출액 추이, 2019년 1분기~2021년 3분기>

(단위: 천원)



<전년동분기대비¹⁾>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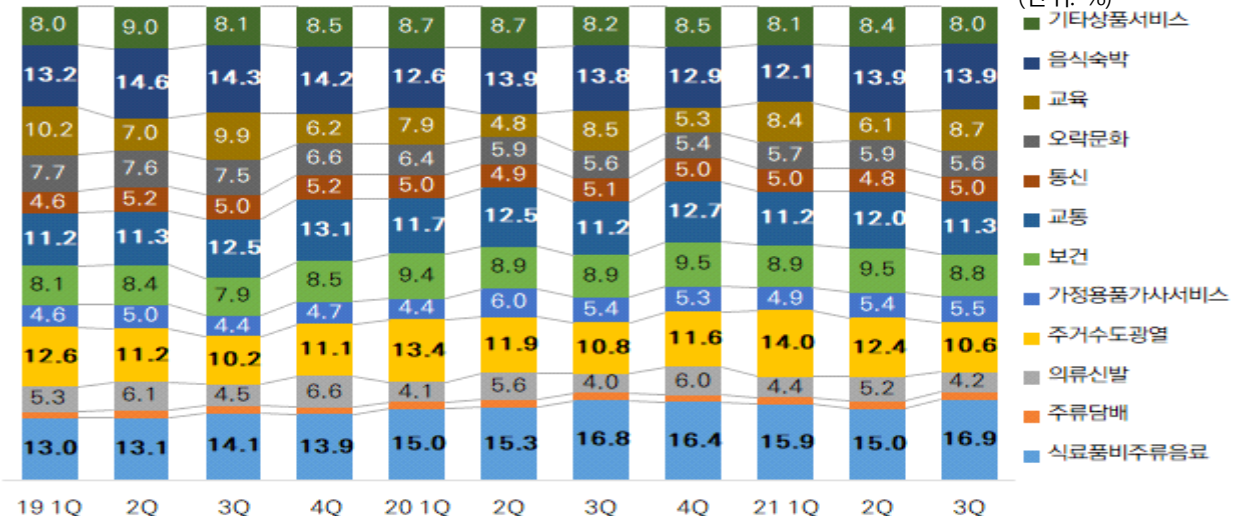


주1) 2019년 가계동향조사 개편으로 분기별 지출액의 시계열 단절 발생

- 「식료품·비주류음료」 부문이 소비지출액 중 차지하는 비중은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에는 13.0%~14.1%였으나, 코로나19 발생 후 15.0%~16.9%로 늘어남

<소비지출 구성비 추이, 2019년 1분기~2021년 3분기>

(단위: %)



소비지출액 상승 부문: 식료품·비주류음료, 주거·수도·광열, 가정용품·가사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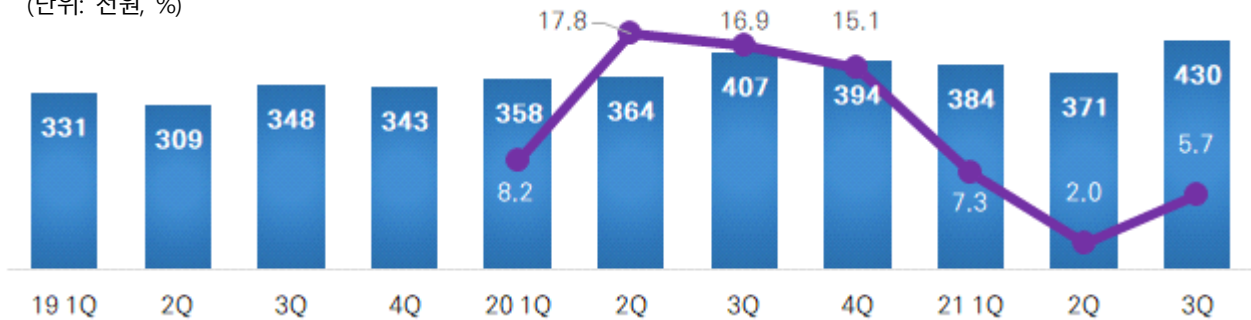
□ 「식료품·비주류음료」 부문의 소비지출액은 코로나19 이후 꾸준히 증가

○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이 직접 반영되기 시작한 2020년 2분기의 지출액은 전년동분기에 비해 17.8%의 증가를 보임

- 식료품 부문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육류', '과일 및 과일가공품', '채소 및 채소가공품'의 지출액도 2020년 2분기 이후 크게 증가한 양상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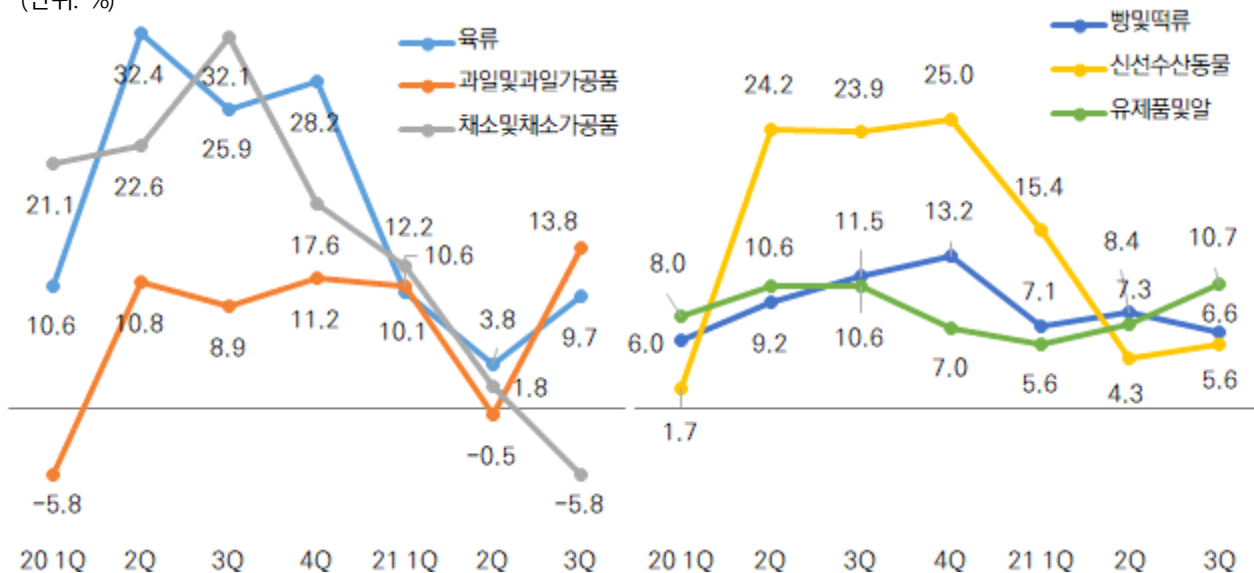
<식료품·비주류음료 부문 지출액 및 증감률(전년동기대비)>

(단위: 천원, %)



<세부 항목별 증감률(전년동기대비)>

(단위: %)



<식료품·비주류음료 부문 주요 항목 지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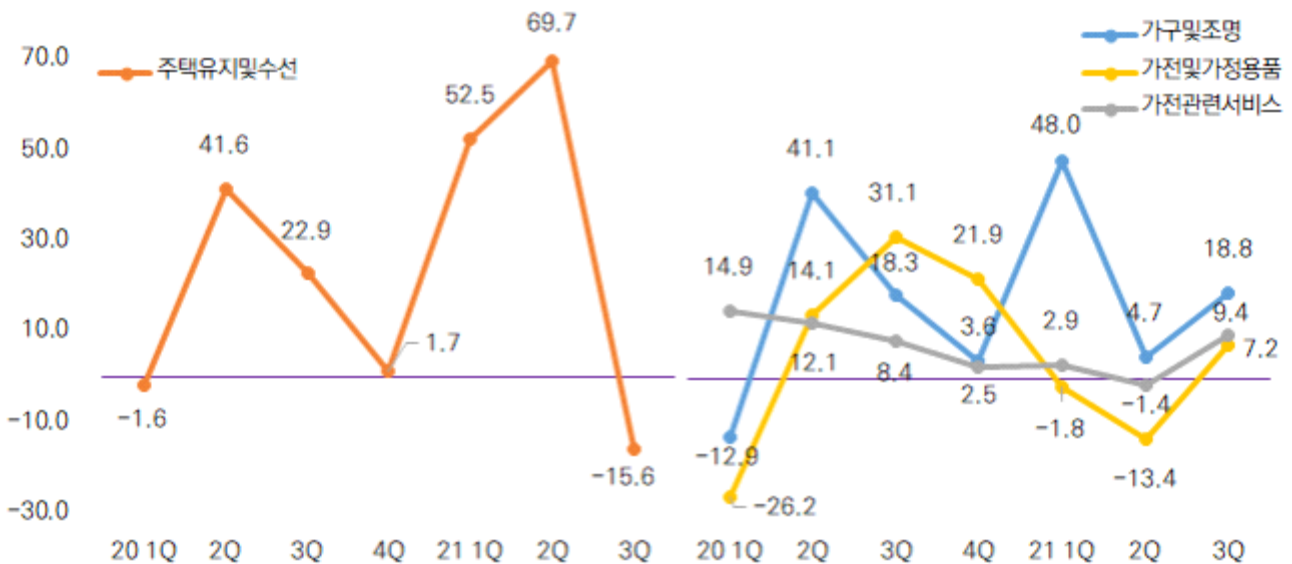
(단위: 원)

분기	'19 1Q	2Q	3Q	4Q	'20 1Q	2Q	3Q	4Q	'21 1Q	2Q	3Q
식료품·비주류음료	330,884	308,864	348,036	342,639	358,109	363,972	406,929	394,453	384,374	371,261	430,029
육류	53,080	43,388	52,772	45,687	58,725	57,440	66,444	58,589	64,663	59,638	72,888
과일및과일가공품	42,062	34,170	41,878	33,088	39,619	37,873	45,601	36,794	43,822	37,686	51,882
채소및채소가공품	29,207	35,072	30,995	39,084	35,374	43,011	40,957	45,980	39,698	43,802	38,581
유제품및알	25,336	25,531	26,136	25,695	27,367	28,228	28,907	27,499	28,912	30,299	32,006
빵및떡류	22,942	21,461	21,452	23,687	24,318	23,434	23,923	26,820	26,037	25,398	25,511
신선수산물	21,008	15,413	19,087	19,402	21,370	19,138	23,649	24,253	24,657	19,970	24,978

- 「주거·수도·광열」 부문 중 ‘주택유지 및 수선’의 지출 변화가 두드러짐
 - ‘주택유지 및 수선’ 항목 지출액의 전년동분기대비 증감률은 2020년 2분기 41.6%, 2021년 2분기 69.7%로 나타남
 - 2021년 2분기 지출액을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2분기와 비교하면 14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가정용품·가사서비스」 부문에서는 ‘가구 및 조명’, ‘가전 및 가정용품’, ‘가전 관련 서비스’의 지출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가구 및 조명’ 지출액은 2020년 2분기부터 전년동분기대비 모두 증가
 - ‘가전 및 가정용기기’는 2020년 2분기 14.1%, 3분기 31.1%, 4분기 21.9%의 증가를 보여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지출이 늘어남

<주거·수도·광열, 가정용품·가사서비스 부문 주요 품목 증감률(전년동기대비)>

(단위: %)



<주거·수도·광열, 가정용품·가사서비스 부문 주요 항목 지출액>

(단위: 원)

분기	'19 1Q	2Q	3Q	4Q	'20 1Q	2Q	3Q	4Q	'21 1Q	2Q	3Q
주거·수도·광열	321,450	265,155	250,660	273,103	318,010	283,702	263,000	279,471	339,681	305,945	269,469
주택수선및유지	26,340	22,298	28,224	31,328	25,911	31,576	34,701	31,874	39,526	53,587	29,277
가정용품·가사서비스	118,167	118,880	109,794	116,087	103,958	143,076	130,945	127,864	118,656	133,004	140,309
가구및조명	18,475	17,084	15,711	19,470	16,091	24,109	18,586	20,174	23,812	25,237	22,074
가전및가정용기기	39,895	42,917	33,465	34,748	29,437	48,971	43,868	42,353	28,903	42,397	47,036
가전관련서비스	9,603	11,633	11,668	11,227	11,038	13,044	12,651	11,506	11,357	12,857	13,8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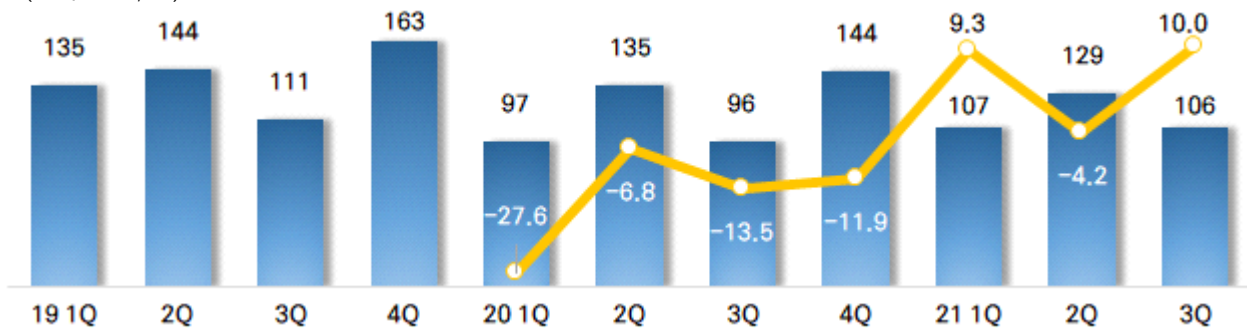
소비지출액 하락 부문: 의류·신발, 오락·문화, 음식·숙박

□ 「의류·신발」 부문 소비지출액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반적으로 하락함

- 코로나19로 개학이 3차례 연기되었던 2020년 1분기는 전년동분기대비 -27.6%,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2분기는 -6.8%, 사회적거리두기가 강화된 3분기는 -13.5%, 4분기는 -11.9%로 전(全)분기 모두 감소를 보임
- 2021년에는 전년동분기대비 지출이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코로나 발생 전인 2019년을 넘어서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의류·신발 부문 지출액 및 증감률(전년동기대비)>

(단위: 천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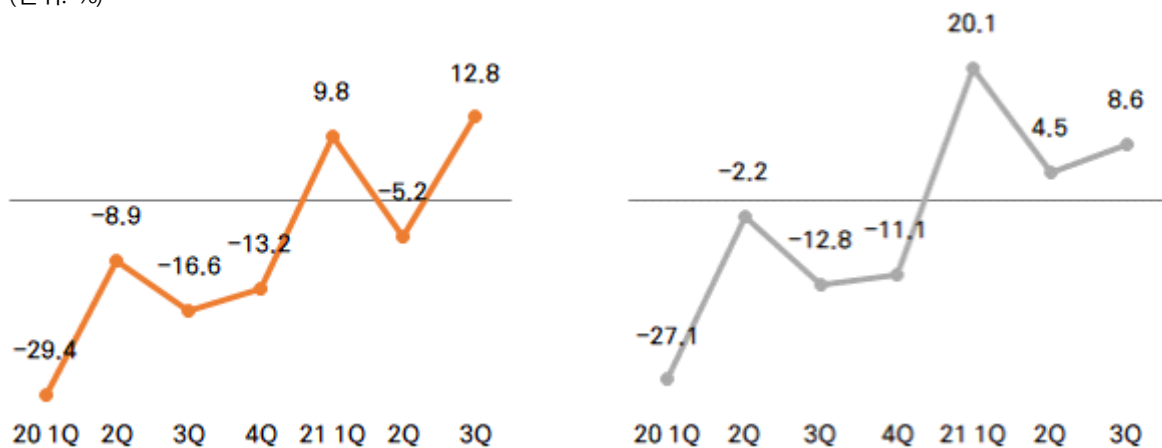


<세부 항목별 증감률(전년동기대비)>

(단위: %)

직물 및 외의

신발



<의류·신발 부문 주요 항목 지출액>

(단위: 원)

분기	'19 1Q	2Q	3Q	4Q	'20 1Q	2Q	3Q	4Q	'21 1Q	2Q	3Q
의류·신발	134,719	144,409	111,399	163,304	97,489	134,561	96,306	143,790	106,509	128,920	105,894
직물및외의	98,360	104,157	79,816	122,843	69,417	94,873	66,589	106,589	76,244	89,893	75,096
신발	18,749	20,504	16,885	19,926	13,664	20,050	14,729	17,723	16,416	20,950	16,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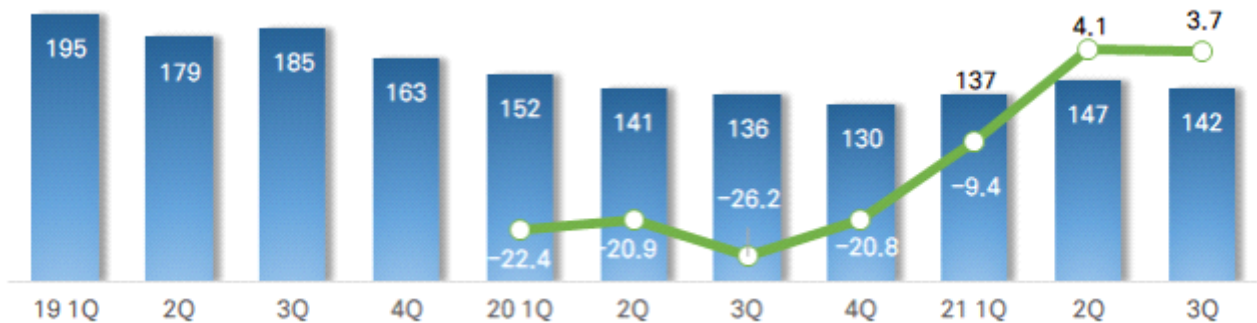
□ 「오락·문화」 부문 소비지출액 또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반적으로 하락

○ 2020년 동안 전년동분기대비 20% 이상의 감소를 보임

- 2021년부터 다소 증가세를 보이거나 여전히 코로나 발생 전인 2019년 지출액에 크게 못미친 것으로 나타남
- '문화서비스', '운동 및 오락서비스', '단체여행비' 등은 확연한 감소를 보임
- 세부항목 중 '정보처리장치', '캠핑 및 운동 관련 용품'은 증가

<오락·문화 부문 지출액 및 증감률(전년동기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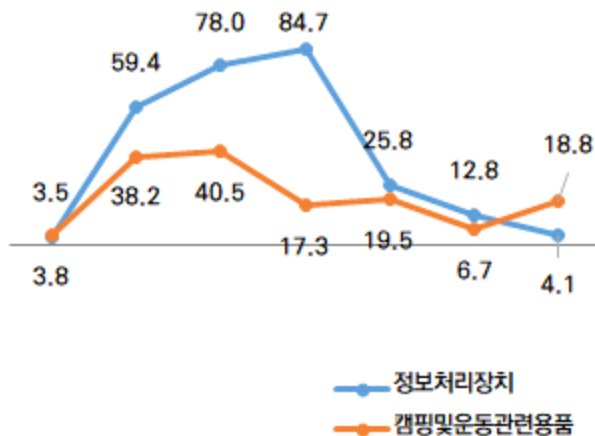
(단위: 천원, %)



<세부 항목별 증감률(전년동기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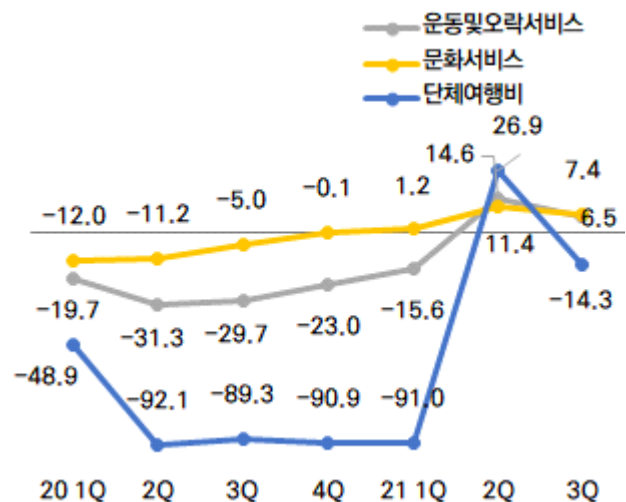
(단위: %)

증가 항목



(단위: %)

감소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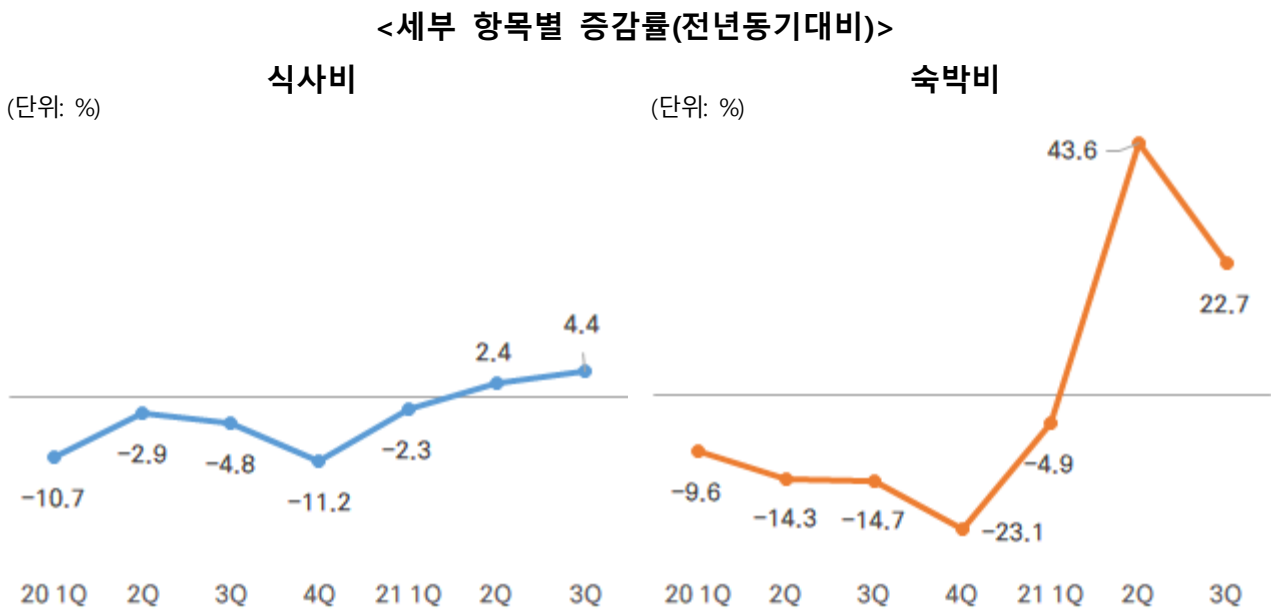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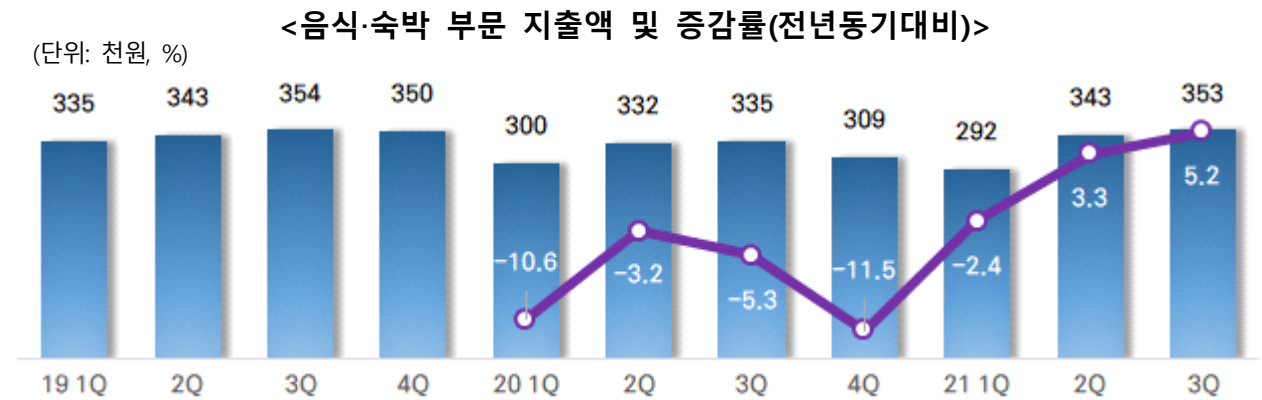


<오락·문화 부문 주요 항목 지출액>

(단위: 원)

분기	'19 1Q	2Q	3Q	4Q	'20 1Q	2Q	3Q	4Q	'21 1Q	2Q	3Q
오락·문화	195,295	178,765	185,039	163,452	151,646	141,346	136,496	129,506	137,391	147,101	141,510
정보처리장치	15,360	7,895	7,392	7,095	15,899	12,581	13,159	13,104	20,001	14,187	13,700
캠핑및운동관련용품	5,341	6,426	5,833	5,252	5,546	8,883	8,193	6,163	6,630	9,482	9,733
운동및오락서비스	24,085	30,268	29,712	23,016	19,344	20,802	20,885	17,723	16,324	23,830	22,233
문화서비스	44,234	44,256	41,684	38,858	38,932	39,278	39,587	38,835	39,404	43,764	42,507
단체여행비	51,207	47,076	51,585	43,623	26,171	3,708	5,498	3,985	2,358	4,704	4,711

- 「음식·숙박」 부문 소비지출액은 2020년 하락하였으나, 2021년 회복세를 보여
2021년 2분기 지출액은 코로나 발생 전인 2019년 동분기 지출액을 상회하였음
- 「음식·숙박」 부문 지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식사비'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1년 1분기까지 감소하였음
- '숙박비'는 2020년 4분기 23.1%까지 감소하였으나, 2021년 2분기 이후
2019년 동분기 지출액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남



<음식·숙박 부문 지출액> (단위: 원)

분기	'19 1Q	2Q	3Q	4Q	'20 1Q	2Q	3Q	4Q	'21 1Q	2Q	3Q
음식·숙박	335,250	343,207	354,046	349,821	299,615	332,287	335,402	309,449	292,485	343,397	352,921
식사비	322,688	334,335	337,421	339,805	288,257	324,685	321,218	301,746	281,682	332,479	335,511
숙박비	12,563	8,872	16,625	10,016	11,359	7,602	14,184	7,702	10,803	10,918	17,410